

수상 소감

나는 씹니다

김태용

글을 시작할 때마다 언어의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글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되나?라는 불만이 섞인 질문으로부터 문학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의심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제 자신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글들을 쓰기도 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과 문장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면서 글쓰기의 쾌락을 강요합니다. 의심에서 비롯된 과정의 글쓰기는 결국 빼기의 글쓰기가 되었고, 빼기의 글쓰기는 이제 버릴 수 없는 저의 창작 방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핍이고, 열등하다고 하겠지만 충만과 고등한 문학은 애초에 저의 편이 아니었고, 제가 갈 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간인 것을 제외하면 제 글의 방향은 점점 비인간화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향해 갈 뿐 아직 비인간 문학으로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실현되지도 않겠지요. 이런 글쓰기를 지속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현재는 이 상태를 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능력을 앞서고 있습니다. (비인간,이라는 말은 물론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예술의 비인간화』에

서 훑친 것입니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글도 좋지만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라고 말할 때 음절 하나하나에 지휘봉을 휘두르고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 글의 8할은 역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비인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기억과 망각의 쪼가리를 끌어모아 언어=인간=사물=환영=소리=언어인 비인간의 세계를, 비인간이라는 세계의 형식을 만드는 것은 저의 문학적 야심이자 망상인데, 메아리치는 언어에 현혹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망상을 끌고 가는 제게 이 상패는 망상의 한패처럼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망상이 아니면 눈앞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이 아니면 문학은 어떻게 즐거움을 줄까요?

이 책의 앞에 게시는 김현 선생님과 제 망상의 글쓰기에 언어의 빛을 주시는 '문학실험실'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을 미지의 독자에게 어둠의 언어로 돌려줘야겠지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 밤이 있습니다. 문학=실험=망상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기에, 한 줄의 목소리를 더듬듯, 언어를 탕진하며, 그 끝으로, 끝이 멀어지도록, 다시 한 발 그리고 반 발 내디디며, 아랫글로 무의미한 크기의 소감을 정리합니다.

나는 씩니다. 밤이 오고 나는 씩니다. 밤에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씩니다. 소리가 음악이 될 때까지 나는 씩니다. 평생 한번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기다리며 나는 씩니다. 음악 이전의 밤이 오고 나는 씩니다. 어떤 망설임이 음악적 떨림을 감지하게 만들고 나는 씩니다. 음악은 이미 지나갔고 나는 씩니다. 지나간 음악이 한 번 더 지나가고 나는 씩니다. 음악을 기록하는 순간 늙어버린 손을 떠올리며 나

는 씹니다. 그 손이 밤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씹니다. 음악을 듣지 않을 때 음악을 더 많이 생각하듯이 나는 씹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 글을 더 많이 생각할 수는 없고 나는 씹니다. 내가 지금 글을 생각하고 있는지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른 채 나는 씹니다. 쓴 것을 부정하듯 나는 씹니다. 쓴 것을 부정하기 위해 나는 씹니다. 쓴 것을 부정할 수 없어 나는 씹니다. 밤이 왔고 나는 씹니다. 밤의 일부가 되면 더 이상 음악은 들리지 않고 나는 씹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씹니다. 밖으로 나가 거리를 걷다가 무언가를 먹어야지, 나는 씹니다. 무언가를 먹고 있는 밤의 동물들을 찾아보리라, 나는 씹니다. 밤의 동물들이 달아나고 나는 씹니다. 걷다가 버려진 소파에 앉아 나는 씹니다. 소파 옆에 놓인 망가진 우산을 펼치고 나는 씹니다. 우산을 펼치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나는 씹니다. 우산을 접으면 비가 그칠 것 같아 우산을 접지 못하고 나는 씹니다. 우산 속에 함께 있던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씹니다. 우산 속의 남자. 우산 속의 여자. 우산 속의 아이. 우산 속의 유령. 우산 속의 강아지. 우산 속의 우산. 나는 씹니다. 모두가 지금 없구나, 나는 씹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우산을 세어 보며 나는 씹니다. 우산을 세어 보다가 잠이 들고 나는 씹니다. 아주 잠깐 동안 아주 긴 꿈을 꾸며 나는 씹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것들을, 억울한 죽음들을,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 꿈은 보여주지 않고 나는 씹니다. 더 이상 꿈에 대해 써서는 안 돼, 나는 씹니다. 눈을 뜨면 더 많은 게 기울어져 보이고 나는 씹니다. 그렇다고 나는 고개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니지, 나는 씹니다. 어떤 죄책감을 물리치려 우산을 접고 나는 씹니다. 우산을 접어도 비는 그치지 않고 나는 씹니다. 애초에 이진 내 우산이 아니었다, 나는 씹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며 나는 씹니다. 애초에 이진 내 소파가 아니었다, 나는 씹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는 씹니다. 더 이상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요령을 피워볼까, 도망칠까, 커다란 옷감 속으로 숨어버릴까, 나는 씩니다. 비에 젖은 채 나는 씩니다. 젖은 머릿속으로 번져가는 문장을 떠올리며 나는 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모든 게 달라지게 하라.' 로베르 브레송의 문장을 따라 나는 씩니다. 어떤 문장을 따라 쓰기 위해 나는 씩니다. 비에 젖는 것보다 문장을 따라 쓰는 것이 쉽고 나는 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모든 게 달라지게 하라, 다시 나는 씩니다. 하지만 이건 내 문장이 아니다, 나는 씩니다. 이건 문장이 아니라 허영 덩어리다, 나는 씩니다. 허영 덩어리를 지우기 위해 나는 씩니다. 허영 덩어리를 부정하기 위해 나는 씩니다. 문장은 허영이 아니라 자존의 영역이어야 한다, 나는 씩니다. 자존의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허영의 문장 백 개를 써야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씩니다. 자존과 허영의 문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씩니다. 접힌 우산이 저절로 열리고 나는 씩니다. 비가 그치고 나는 씩니다. 열린 우산 위에서 비가 그치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씩니다. 평생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기다리며 나는 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존과 허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고 나는 씩니다. 다시 무언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고 나는 씩니다. 크고 둥근 수박을 쪼개 먹으며 수박씨를 뺄는 속도로 나는 씩니다. 수박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라는 늙은 손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나는 씩니다. 수박은 같이 먹고 글은 혼자 써야 한다, 나는 씩니다. 밤이 아니라도 좋고 나는 씩니다. 음악이 아니라도 좋고 나는 씩니다. 크고 둥글고 쪼갤 수 있는 수박의 문장을 뺄으며 나는 씩니다. 밖에서 안으로 돌아갈 때는 길이 다르고 나는 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계속 걸어라, 나는 씩니다. 수박은 아직 멀고 밤이어야 하고 음악이어야 하고 나는 씩니다.